

쿠르드 자치정부 대규모 인프라건설 참여



우리 회사를 대표로 하는 한국 컨소시엄 (가칭 : SOC 컨소시엄) 이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쿠르드 자치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김석준 회장은 2월 14일 우리 회사, 두산건설, 극동건설, (주)유아이 이앤씨, 안흥개발(주) 등 국내 5개 건설사로 구성된 SOC 컨소시엄을 대표해서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네차르반 바르자니(Nechirvan Barzani) 총리와 서울 신라호텔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SOC 컨소시엄은 3월 중 에르빌(Erbil) 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1차로 총 2조원 규모의 자코(Zakho)~에르빌(Erbil)~슬레이마니아(Sulaymaniyah) 간 4차선 고속도로(장 약 450km)를 시작으로 상하수도, 전력공급, 석유화학 플랜트, 병원, 학교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순차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환경사업부 물관리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

2008 물의 날을 기념하여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환경타임즈·환경방송, 환경산업정보 주관으로 제15회 물관리 심포지엄 및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지속가능한 물, 안전한 물관리’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환경분야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우리 회사 환경사업부 이동일 대리는 ‘고효율 분리막을 이용한 하수 재이용 적합기술’을 주제로 발표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하수고도처리기술 ‘KSMBR’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공동연구 성과 발표

기술개발부 박철용 과장은 3월 4일 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

건설경영협회가 주최한 ‘주택성능등급제 공동연구 성과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주택성능 5개 부문 중 환경관련 부문을 발표하였다. 조경, 빗환경, 실내공기질, 열환경 성능에 대해 등급현황 분석, 등급결정요인 파악, 등급향상방안, 평가기준에 대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 공동연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에 걸쳐 28개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우리 회사는 환경부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엘리베이터 지하층 연장운행을 위한 공동부 시공방법」 외 1건 특허등록 및 출원

2008년 2월 ‘엘리베이터 지하층 연장운행을 위한 공동부 시공방법’이 특허로 등록되어 우리 회사의 리모델링 기술력이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 12월에는 ‘일체형 단열완충재 및 그 제조방법’이 특허로 등록되었고, 2008년 2월에는 ‘복층 건물의 필로티 보강 구조체’라는 발명이 특허로 출원하였다.

행복상상, KSMBR 서비스표 등록

2008년 2월 고객서비스명인 「행복상상」이 35류, 36류, 37류, 42류에 각각 상표로 등록되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신기술 「KSMBR」이 40류에 상표로 등록되었다.

명일 삼익가든 768가구 리모델링 수주

명일 삼익가든 768가구 리모델링 수주 리모델링을 통해 총 27개의 평면으로 완성되는 ‘평면 백화점’ 아파트가 등장한다. 우리 회사가 1월 19일 99%의 동의율을 얻으며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된 강동구 명일동 260-1, 270번지 10개동 총 768가구 규모의 삼



익가든(등기명 · 삼익맨션)이 그 주인공이다.

이 아파트는 ▶ 79,33㎡~ 178,51㎡ 7개 주택형이 리모델링 후 ▶ 99,42㎡~ 241,22㎡ 총 7개 주택형 27개 타입으로 탈바꿈한다. 이렇게 평면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ㄱ’과 ‘모’ 자 단지 배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설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현재 리모델링 대상 단지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ㄱ’과 ‘모’ 자 단지 아파트는 꺾인 면에 접한 세대 증축의 한계, 비좁은 동 간격으로 인한 증축 후 사생활 ·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삼익가든 아파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전후면 + 측면 증축’ ▶ ‘측면 증축’ ▶ ‘중정형 설계’ ▶ 계단을 사이에 두고 하층에 거실, 주방, 욕실, 인방이 들어서고 상층엔 자녀방, 소거실이 배치되는 ‘스킵플로어(Skip Floor)’ 설계 ▶ ‘구조 기동 위치 변경 공법’ ▶ ‘엘리베이터 지하층 연장공법’ 등 다양한 최신 설계와 첨단 공법을 동원했다.

공사비는 약 1,400억원이며, 인허가와 이주 절차를 거쳐 2009년 중 착공해 2011년 완공될 예정이다.

한국방재학회 기술상 수상

2월 28일 토목기술부 조 현 부장은 기반시설물, 사면, 터널, 철도 등 다수의 대형 국책사업의 방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 품질 향상 및 VE를 통한 국가 예산절감에 기여함을 인정받았고 방재 관련 분야의 왕성한 대외활동과 다수의 논문 발표 및 국내 방재기술 발전에 공헌하여 한국방재학회 기술상을 수상하였다.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우리 회사 김정성 부장(중앙선 복선전철 제 5공구 현장소장)이 지난해 12월 28일 부실시공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부장은 토목공사에 가장 많이 설치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 후 온도, 하중, 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 · 관리하는 양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에 충실한 프로정신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주기적으로 교육시켰으며, 교각 철근 조립시 기능공의 안전작업환경 확보를 위한 달대비계 설치와 교량 슬라브 양생시 스프링쿨러 설치를 제안하는 등 안전시공을 통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발주처인 한국도철도시설공단이 자체 실시한 ‘품질 · 안전

경진대회’에서 2005년 우수상에 이어 2006년, 2007년에는 현장 관리 최우수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 및 안정시공으로 타 현장의 모범이 된 점도 높게 평가됐다.

한편 2001년 5월 착공한 이 현장은 중앙선 덕소에서 원주까지 총 90.4km의 단선 전철을 복선화 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서 급증하는 화물과 여객 수송의 대안이 되는 것은 물론 낙후된 경기 동부와 강원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09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우리 회사 심광구 부장(남강댐 제 2권역 하수도시설 현장소장)이 12월 31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심 부장은 전 직원을 품질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 임명해 모든 공정에 시공실명제, 사전검측제 등을 철저히 적용하고, 환경상태 변화의 실시간 파악을 위해 환경감시제를 실시함은 물론 유해한 환경영향 목록을 일일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는 등 환경피해 사전 예방 및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 공사는 남강댐 상류 산청군, 하동군, 의령군, 사천시 등의 사업대상지역 일원에서 총 132km 하수관거 신설 및 71개소의 기존 하수관거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2006년 9월 착공해 2010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장 표창



우리 회사 광덕신 차장(인천북항 일반부두 3선석 민간투자사업 현장)이 12월 31일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곽 차장은 착공전부터 인천북항에서 갯벌채취어업을 영위해온 어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약지반으로 인한 열악한 공사여건 속에서도 최첨단 선진공법을 적용해 사업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에 기여함으로써 인천북항의 대외 경쟁력 확보는 물론 우리나라 항만기술력을 향상 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또한 1995년 부산항 자성대 공사중 파나마 선적에 의해 6부두 파손 사고가 발생하자 행잉(Hanging)공법을 적용해 처리불능 상태였던 컨테이너 1선석을 3개월 만에 복구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한편 인천북항 일반부두 3선석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 1,139억원을 들여일반부두 2만톤급 3선석의 부두를 개발하는 것으로, 향후 수도권 핵심 물류기지 및 중국과의 교역 중심지로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2005년 11월 착공해 2009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죽전역 개통식 및 표창 수상



우리 회사가 시공중인 오리-죽전 복선전철(소장·이덕수 부장) 구간에 포함된 죽전역이 완공돼 지난해 12월 24일 개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 회사 이재필 차장, 임현오 과장, 김재동 과장, 김희량 과장, 현재형 사원 등 현장 직원 5명은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오리-죽전 복선전철화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상했다.

2002년 9월 착공한 오리-죽전 복선전철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004년 11월 임시역사인 보정역을 개통시켜 죽전역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게 했으며, 차량기지 및 연결선로 공사가 완료되는

2008년 6월 전체 구간이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죽전역이 개통됨에 따라 용인시 죽전지구와 수지구 인근 주민들은 출·퇴근시 8분, 평상시 14분 간격으로 매일 201회 운행하는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최근 캠퍼스를 옮겨온 단국대 죽전캠퍼스 교직원 및 학생들의 교통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색사거리-수원시계 도로 개통식 및 수원시장 표창



우리 회사가 시공한 고색사거리-수원시계 도로(소장·임재영 부장)가 완공돼 1월 23일 개통식을 가졌다.

이 날 자리에서 우리 회사 김병호 사장과 임재영 부장, 김덕환 차장 등 당 현장직원 2명은 행복한 수원시 건설에 앞장서며 발주처 및 하도급업체와 상호협력해 모범적인 건설공사를 수행한 공로로 수원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2006년 1월 착공한 고색사거리-수원시계 도로는 2009년 개통 예정인 서수원-평택 민자도로, 용인-서울 민자도로 등 연계돼 지역 발전 및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정수장 개량사업 1단계 공사 현장 인천시장 표창 수상

2월 4일 부평정수장 개량사업 1단계 토목·건축공사" 현장(최규만 소장)에서는 준공식 행사 중 부평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정수장 개량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시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노후한 부평정수장 1공장이 1일 생산능력 15만 규모의 현대식 정수시설로 탈바꿈함으로써 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팔당원수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풍납원수의 확대 사용도 가능해져 연간 80여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S